



한화사이언스챌린지, 15년간 미래 과학인재 육성

한화그룹이 고교생의 창의적인 과학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과학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를 15년째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088개 팀이 참가해 연구 성과를 겨뤘다. 제15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6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



롯데마트, 청년농부에 친환경 비료 47톤 기부

롯데마트가 청년농부들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친환경 비료인 ‘바이오차’를 지원하며 농가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롯데마트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친환경 비료 바이오차 전달식’을 열고 청년농부 및 파트너사 농가 26곳에 바이오차 약 47톤을 전달했다. /롯데마트



코웨이엔텍, 영남대와 물 재이용 분야 기술 확보

코웨이의 수처리 자회사 코웨이엔텍이 영남대학교와 ‘역삼투(RO) 농축수 처리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물 재이용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 협약은 코웨이엔텍과 영남대가 지난 2024년부터 공동으로 수행해 온 ‘재이용플랜트 내 농축수 처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공정 개발’ 연구 성과를 사업화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왼쪽 5번째부터)영남대 김재홍 산학연구처장, 코웨이엔텍 방윤혁 대표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GS칼텍스, 독립유공자 후손 돕는 ‘815런’ 후원

GS칼텍스가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기부 마라톤에 힘을 보탰다. GS칼텍스는 지난 1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6 815런’을 후원하고 임직원과 가족 300명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815런에 참여한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GS칼텍스



네츄럴코어, 구조견 해외 입양까지 돕는다

네츄럴코어 ‘글로벌 프렌즈 봉사단’이 지난 13일 유기동물 구조단체 ‘드림테일즈리스크 코리아’와 함께 해외 입양이 결정된 구조견의 이동 봉사에 참여했다. 사진은 수송용 케이지에서 캐나다 출국을 기다리는 구조견 ‘테디’. /네츄럴코어

“미래 경쟁력은 사람”... 삼성, 과학인재에 장학금 전달

국제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 15명 대표단 선발·대회 참가비 등도 후원

삼성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 15명에게 직접 장학금을 건넸다. 반도체·바이오 경쟁의 승부가 결국 기초과학 인재 확보에 달렸다는 판단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과 학부모를 사업장에 초청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세 차례로 나뉘어 열렸다.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은 이날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수상자 6명(금 3은 2·장려 1)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13일 화성캠퍼스에서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수상자 5명에게,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14일 송도 사옥에서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수상자 4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줬다.

올해 성적표는 예년보다 두드러졌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왼쪽 세 번째)과 박시중 대한수학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왼쪽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다. 물리는 대표 5명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이 가운데 오주하 학생이 참가자 종합 1위에 올랐다. 생물 역시 4명 전원 금메달로 2019년 헝가리 대회 이후 7년 만이다. 수학에서도 이현준(서울과학교 3) 학생이 42점 만점으로 개인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수학 종합 순위는 6위였다.

삼성의 지원은 장학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한국과학창의재단·대한수학회·한국물리학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월 한국생물교육학회와 각각 후원 협약을 맺었다. 후원금은 대표단 선발·교육·대회 참가비용으

로 쓰이며 수상자 장학금은 이와 별도로.

기술·소프트웨어(SW) 분야도 마찬가지다. 2007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하며 고졸 기술인재를 특별 채용해 왔고 2018년 출범한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는 수료생 1만1000여명을 배출했다. 누적 취업률은 85%다. 올해부터는 연간 교육시간의 60%를 인공지능(AI) 과정에 배정했다.

이 같은 투자의 배경에는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이 자리한다. 한국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4000명까지 늘지만 한

재 추세대로면 최대8만1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4대 과학기술원 진학자는 2023년 876명에서 2025년 782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844명으로 반등했다.

삼성 관계자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재제일 경영철학에 따라 국내 이공계 인재 육성 노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보, 인천 미래전략산업에 금융지원

인천시·하나銀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인천광역시, 하나은행과 지역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나선다.

17일 기보에 따르면 인천시, 하나는 행과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총 25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용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총 12억원을 기반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하나는행은 보증료(0.6%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본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이고,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



지난 1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기보 박주선 전무, 인천시 송현석 정책수석, 하나은행 이호성 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ntents&Culture) ▲에너지(Energy)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금융지원 역량을 연계해 인천지역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박주선 전무는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29일까지 서류전형 접수

iM뱅크가 202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전형·지역전형·전문전형 등 세 부문에서 동시 진행된다.

17일 iM뱅크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행원 서류전형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지역▲전문 등 세 가지 전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번 공개 채용은 학력과 전공 등 지원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에 기반한 블라인드 공정 채용

으로 진행된다.

일반전형은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전형은 대구·경북권 인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전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서류를 접수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AI역량평가 포함), 필기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중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한 지원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한 AI역량평가를 실시하며 은행의 기업문화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화적 적합성 평가도 진행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구분옥 KB손해보험 사장(첫째줄 왼쪽 다섯번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에 참석한 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체계’ 고도화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이다.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법규 준수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KB손해보험은 이번 CP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체계’도 함께 고도화한다. 보험약관 및 표시광고의 불공정성 사전 검증, 대리점 수수료 관리의 공정성 확보, IT 및 손해사정 외주 용역에서의 하도급법 준수 등 고위험 영역을 세분화해 리스크 식별 및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